

# 高句麗 古墳壁畫服飾과 社會階層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부 교수 金 貞 鎬

目 次	
I. 序論	1. 높은 신분층
II. 理論的 背景	2. 중간 신분층
1. 社會계층 개념	3. 낮은 신분층
2. 高句麗 時代의 社會階層	V. 結 論
III. 高句麗 古墳壁畫속의 服飾	參考文獻
IV. 계층에 따른 服飾 構造	

## I. 序 論

우리나라 上古시대의 복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資料인 高句麗 古墳壁畫속의 服飾에 관한 資料를 모아 分析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발표된 高句麗 古墳壁畫속의 복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계층에 따른 복식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복식이 신분상징의 표상물로 더욱 중히 여겨졌던 古代執權國家인 고구려 시대의 고구려 사람들의 복식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신분제 사회의 복식을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복식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 기회에 기본 복식구조에 관해서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II. 理論的 背景

### 1. 社會계층 개념

어느 社會에서나 人間에게는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觀察될 수 있는 여러가지 差異點이 있는데 그 중에는 性, 年齡, 體型, 精神能力 그리고 人間有機體에 유전된 다른 특질이 있고 이외에도 부모가 획득한 많은 사회적 특질 그리고 社會的 構成員으로서

個人이 획득한 많은 사회적 특질에 의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差異에 기초를 두고 區別되어지는 社會的 역할과 分業을 社會적 分化라고 하며 分化에 따른 不公平한 差別이 繼承되는 社會的 地位의 獨自的 體系로 발달하면서 社會는 계층화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든 社會는 그의 社會的 構造를 이루는 基本單位인 地位에다 個人들을 分配해야 되고 그들을 이러한 地位에 따른 義務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어떤 종류의 보상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社會는 개인들이 구별되어져 있고 또한 상당량의 불평등이 감수되는 계층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계층화된 社會를 여러 범주로 나누는 변인인 收入, 富, 生活機會등의 差別的 配分은 각 계층에 속한 個人과 家族의 社會的 위광에 差異를 가져오고 客觀的으로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저한 文化的類似性이 나타난다. 社會階層은 個人들의 삶의 기회와 그들의 生活樣式에 影響을 미치고 계층화의 結果로서 생긴 生活樣式의 차이는 衣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衣服은 生活樣式을 나타내는 重要的 指標이며 매우 多樣한 地位象徵의 形態로 계층의 가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2. 高句麗 時代의 社會階層

국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초기의 고구려는 消奴部 桂婁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의 5부족 연맹 조직을 갖고 있었다. 고구려 초기의 관제는 왕 아래 相加, 對盧, 沛者, 古離加, 主簿, 優台, 丞 등의 관리가 있었고 王과 諸加는 使者, 阜衣, 先人 등의 家臣을 거느렸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록을 보면 大加가 역시 使者, 阜衣, 先人 등의 職人을 自置함을 전하고 있다. 「加」階級の 身分化는 三國志 高句麗條에 나타나는 다음의 기록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즉 大加는 幘을 쓰고 小加는 折風을 썼다는 것은 「加」身分이 國家權力의 통제하에 大加와 小加로 일괄 편성되어 외형상 구분되어지는 형식마저 갖추어진 보편적인 身分化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大加

가 主簿와 같이 幘을 썼음을 보면 대략 大加가 官職上 主簿級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중 王族의 大加는 古離加라 하고 高句麗執權의 형성에 비중이 컸던 大加는 相加라 하여 그 자체로서 國政에 參與하였다. 행정구역은 중앙을 동서남북 중의 5부로 나누어 大加들이 통치하였다. 각 부 밑에는 여러 城이 딸려 있었다. 각 부의 장을 禡薩, 城의 장관을 處閭近支 또는 道使라고 칭하였다. 지배층인 왕족과 관료들은 정치 군사 교육등을 담당하고 생산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민 노비등은 下戶라고 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피 지배층이었다. 隋書 등의 옛 기록에 의하면 高句麗는 장수왕 이후 廣大한 영토를 갖고 이것을 통치하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직제개편을 하였다고 한다. 高句麗 官制變遷의 一貌를 짐작하기 위하여 魏志 이후의 옛 기록에서 발췌한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高句麗官階組織變遷表

魏 志	周 書	隋 書	庶 書	翰 苑
1. 相 加	1. 大 對 盧	1. 太 大 兄	1. 大 對 盧	1. 大對盧(吐粹)
2. 對 盧	2. 太 大 兄	2. 大 兄	2. 鬱 折	2. 太大兄(莫何羅支)
3. 沛 者	3. 大 兄	3. 小 兄	3. 太大使者	3. 鬱折(主簿)
4. 古離加	4. 小 兄	4. 對 盧	4. 卓衣頭大兄	4. 大太使者(謁奢)
5. 主 簿	5. 意 侯 奢	5. 意 侯 奢	5. 大 使 者	5. 衣頭太兄(中喪卓衣頭大兄)
6. 優 台	6. 鳥 拙	6. 鳥 拙	6. 大 兄	6. 大使者(大奢)
7. 使 者	7. 太大使者	7. 太大使者	7. 上位使者	7. 大兄加(緡支)
8. 卓 衣	8. 大 使 者	8. 大 使 者	8. 諸 兄	8. 收位使者(儒奢)
9. 先 人	9. 小 使 者	9. 小 使 者	9. 小 使 者	9. 上位使者(乙奢)
	10. 禡 奢	10. 禡 奢	10. 過 節	10. 小兄(失之)
	11. 醫 屬	11. 醫 屬	11. 先 人	11. 諸兄(醫屬)
	12. 仙 人	12. 仙 人	12. 古皞大加	12. 過節
	13. 禡			13. 不過節
				14. 先人

고구려 시대의 사회계층을 문헌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전체적인 규모의 사회구조속의 계층이 파악되지 않고 상류계층에 해당하는 官階組織 변천만이 단편적으로 문헌에 인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복식은 계층별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는 문헌 속의 자료만으로는 고분벽화 속의 인물들을 구분하여 계층을 설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계층개념은 계급에 대비된 개념으로 사회를 관찰하는 분류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먼저 고분 벽화속의 인물 풍속도를 고구

려 벽화고분과 고구려 문화라는 책속의 복식 模寫圖와 안악 1.2호분 발굴 보고, 안악3호분 발굴 보고, 덕흥리 壁畫古墳속의 服飾 模寫圖를 복사하여 고분별로 模寫圖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1940년 日滿文化協會에서 발간된 通構(卷下), 韓國美術全集4(壁畫) 고구려 문화전 슬라이드(1985년 북한 고분벽화 자료가 일본에서 전시된 것으로 고분벽화와 복원된 유적이 있음) 1985년에 북한에서 편집되어 일본에서 발행한 高句麗 古墳壁畫(문화재 관리국 자료실·열람 가능)칼라판 자료등

에서 필요한 인물 풍속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模寫圖를 그린후 고분별로 보충하였다. 고분별로 모사도를 정리한 후 다시 하고 있는 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개의 종류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였다.

① 주인공 부부및 자녀(초상화, 부부명좌상, 행렬도) ② 악기 다루는 사람들 ③ 춤추는 사람들 ④ 曲藝하는 사람들 ⑤ 갑옷입은 武士들 ⑥ 살림하는 노비층 ⑦ 운동하는 사람들 ⑧ 수문장 및 力士 ⑨ 말타고 수렵하는 사람들 ⑩ 주인공 호위 관리들

이를 다시 커다랗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보면 ① 주인공 부부및 자녀는 높은 신분층으로 분류하고 ② 주악인 ③ 무용인 ④ 곡예인 ⑥ 잡역인 ⑦ 운동인 ⑧ 수문장 및 力士등은 낮은 신분층으로 나누고 ⑤ 갑옷 무사인 ⑨ 수렵인 ⑩ 주인공 호위 관리 등은 중간 신분으로 나누기로 한다.

### Ⅲ. 高句麗 古墳壁畫속의 服飾

#### 1.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

後漢書(卷一百十五 高句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如冠 幘而無後 其小著折風形如弁〉

三國志(卷十三 烏丸鮮卑 東夷傳 第三十 高句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如幘而無後 其小加 著折風形如弁〉

梁書(卷五十四 列傳 第四十八 諸夷 東夷 高句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小著以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南齊書(卷五十八 列傳 諸三十九 蠻 東南夷 高麗)

〈高麗俗 服窮袴 冠折風一梁 謂之幘〉

魏書(卷一百 高句麗傳)

〈其官名有謁奢 太奢 大兄 小兄之號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中略)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爲飾〉

周書(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上 高麗)

〈丈夫衣筒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其冠曰蘇骨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紫 又插二鳥羽 其上以顯異之 婦人服裙袖皆爲襪〉

隋書(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高麗)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婦人裙襦加襪〉

南史(卷七十九 列傳 第六十九 夷貊下 高句麗)

〈十月祭天大會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 頭所著以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北史(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三 高麗條)

〈人皆頭着折風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婦人裙襦加襪(中略) 好歌舞 常以十月祭天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爲飾〉

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五 東夷 高麗條)

〈王服五綵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釧 大臣 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釧衫筒袖袴大口白韋帶 黃革履庶人衣褐戴弁 女子首巾幘〉

通曲(卷一百八十六)

〈其公衣會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如冠 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中略) 南齊武帝永明中高麗使 至服窮袴冠折風 中書朗王融戲之曰 服之不章 身之災地 頭上定是何物 答曰此即古弁之遺像也〉

翰苑

高麗記云 其人亦造錦紫地縵文者爲上 次有五色錦 次有雲布錦

三國史記(卷三十二 雜誌一樂)

〈高句麗樂 通典云 樂工人 紫羅帽 飾以鳥羽 黃大袖 紫羅帶 大口袴 赤皮靴 五色緇繩 舞者四人 椎髻於後 以降扶額 飾以金鐺 二人 黃裙襦 赤黃袴 二人 亦 黃裙襦袴 極長其袖 烏皮靴 雙雙併立而舞〉

三國史記(卷三十三雜誌二 色服)

〈北史云 高句麗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插 貴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婦人裙襦加襪 新唐書云 高句麗王服五綵以百羅製冠 革帶皆金釧 大臣青羅冠 次綱珥兩鳥羽 金銀雜釧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幘 冊付元龜云 高句麗 其公衣會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 着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着折風 形如弁〉

#### 2. 고분벽화속의 복식

고구려 古墳은 외관상으로 石塚과 土塚으로 나누어지는데 石塚은 지상에 돌더미를 쌓아 올리고 그 중간에 시체를 넣어두는 式이다. 土塚은 石室위에

封土를 덮은것을 말하며 내부에 있는 壁畫가 주목된다. 土墳의 기본형은 입구와 羨道가 달린 소위 橫穴式石室로 되어 있다. 壁畫는 일반적으로 石室 벽면에 두껍게 灰칠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으나 물갈이 한 판석에 직접 그린것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60여기의 벽화고분 중에서 축조 연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고분은 紀年墨畫가 있는 安岳三號墳(A·D 357年)과 덕흥리 벽화고분(A·D 408年)이다. 또한 牟頭婁의 계급적 출신과 그의 지위

등을 밝힌 墓誌가 있는 牟頭婁墳이 있다.(5세기 초로 추정) 벽화내용은 내용의 주제에 따라 ① 人物風俗圖 ② 人物風俗圖 및 四神圖 ③ 四神圖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벽화고분은 역사적 변천에 따라 수도였던 오늘의 輯安현 通溝지방 중심과 平壤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지역, 그리고 安岳주변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정리한 模寫圖가 있는 고분벽화는 다음과 같다.

地域 古墳名	通溝附近	平壤附近	安岳附近
1	角抵塚	平壤驛前 壁畫墳	安岳 一號墳
2	舞踊塚	鎧馬塚	安岳 二號墳
3	三室塚	高山里 第一號墳	安岳 三號墳
4	通溝 四神塚	八清里 壁畫古墳	
5	通溝 第四號墳	江西 大墓	
6	通溝 第五號墳	藥水里 壁畫墳	
7	通溝 第一二號墳	台城里 一號墳	
8		修山里 壁畫墳	
9		雙楹塚	
10		大安里 一號墳	
11		梅山里 四神塚	
12		龕神塚	
13		德興里 古墳	

### 3. 古墳壁畫에 나타난 高句麗服飾概念

벽화고분의 피장자에 대해 中國系인가 高句麗인가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壁畫古墳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고구려복식 구조를 논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固有한 高句麗服飾을 우리 고유문화 개념에서 파악해 보고 限定시켜 보고자 한다.

文化란 人間의 本能을 代身하고 사회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민족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의 작용을 받아가면서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다. 민족문화는 객관적 여건과 민족경험에 의해서 성격 지워질 수 있다.

우리민족의 고유한 요소란 단군시대의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며 고구려 시대의 우리민족 그리고

현재의 한국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전부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것은 고유한것과 경험한 것이 더해진 것이다. 우리의 것은 장기간의 歷史的 형성 과정과 社會的 변화를 겪고 체험하는 사이에 보태지고 빼고 다듬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자체안에서 創造된 것이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든 간에 역사 과정속에서 우리의 生活과 文化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되어 버린것이 남의 것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民族文化라는 우리것에 대한 개념을 고유한것과 경험한것을 합하여 생각한다면 高句麗時代의 服飾을 古墳壁畫속에서 살펴볼 때 그시대 高句麗 영토안에서 발견된 古墳속의 壁畫 服飾은 高句麗 服飾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장자가 중국계인가, 高句麗人인가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安岳三號墳, 德興里古墳, 平壤역전古墳, 遼東城塚壁畫를 포함하여 人物風俗圖가 그려진 벽화속의 복식은 고구려인이 경험한 服飾文化이므로 고구려 복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혹 중국계 古墳이라 할지라도 古墳의 樣式으로 볼때 後代 高句麗古墳의 출발점이 되므로 당연히 고구려 복식을 논하기 위한 壁畫古墳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 IV. 계층에 따른 복식구조

##### 1. 높은 신분층

###### ① 묘주(주인공) 부부및 자녀

남자주인공은 모두 머리에 冠을 쓰고 있다. 冠의 종류는 幘처럼 생긴 內冠과 성긴 비단으로 만든 外冠 즉 덧관의 二重冠인 羅冠과 높이가 낮은 직육면체의 小冠이다. 그런데 통구지방의 고분인 무용총, 각저총, 삼실총의 주인공은 초상화 형태가 아니고 일상 생활의 모습이고 또한 바지 저고리 차림이며 冠의 형태는 직육면체의 小冠이다. 평양 지방 대부분의 벽화 주인공이 羅冠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쌍영총, 약수리고분, 덕흥리고분, 대성리고분, 감신총 안악3호고분 모두 주인공이 초상화 형식으로 뒤에 장방이 드리워진 형태로 넓은 闊袖袍에 羅冠을 사용하고 있다. 隋書와 北史에서 貴者는 紫羅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하는 蘇骨이라는 冠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上流계층은 羅로 만든 冠을 썼으며 색상과 장식으로 신분상의 차이를 세분화 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자 주인공의 冠帽를 살펴보면 각저총 삼실총 수산리고분의 여주인공이 쓰고있는 관이 건곽으로 생각되며 쌍영총 약수리고분 매산리 사신총 안악3호 안악2호의 여주인공은 관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약수리고분의 여주인공은 긴 비녀를 고슴도치처럼 머리에 꽂았으며 안악3호 여주인공은 머리를 높이 치켜올려 중간을 묶었으며 다시 그 둘레에 둥근데 모양의 머리형태를 두른 매우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천왕지신총의 여주인공은 현대 패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챙이 달린 笠帽를 쓰고 있다. 남자 주인공이 거의 관모를 착용한 것에 비해 여 주인공의 頭飾은 매우

다양하고 규격화되지 않은 개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구지방의 남자 주인공들이 바지 저고리 차림인데 비해 평양지방 벽화 고분의 주인공이 거의 넓은 직령의 활수포를 입고 있다는 것은 실제 上流層의 생활에서 활수포의 착용이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襦와 袴는 袍속에 입어서 깃의 모습이 여러 옷을 겹쳐 입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李如星이 정의한 고유袍는 남자의 경우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고유袍가 고구려 벽화고분속의 上流層 服飾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외국문화와의 접촉이 큰 上流層은 漢化된 闊袖袍를 착용했으리라 생각되며 보수성이 강한 여자들과 승려층에서 계속 고유袍가 착용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자 주인공의 복식은 통구지역의 벽화고분에서 보면 모두 좌임의 선이 둘러져 있는 고유포를 입고 있다. 그러나 평양지역고분의 여주인공은 장방에 둘러싸인 초상화 형식의 앉아있는 모습인데 모두 소매가 넓고 헐거운 포를 입고 있다.

##### 2. 중간 신분층

###### 1) 武人들

갑옷 무사들은 모두 챙이 없는 투구를 사용하고 있다. 머리에는 여러개의 쇠로 만든 작은 패쪽을 꿰뚫어서 만든 철제 투구를 쓰고 있다. 그 모습은 오늘날의 방한모에서 귀덮개를 내린 것과 비슷한데 윗부분은 둥글게 생겼다. 무사계급 중 신분이 높은 자의 것은 꼭대기에 여러가지 장식을 만들었는데 꼬챙이를 세우고 그 위에 쇠로 만든 잔과 같이 생긴 것을 달고 거기에 털을 달아 드리운것, 쇠꼬챙이 끝에 그냥 털을 단것, 꼭대기에 깃을 3~4개 꽂은것 등이다. 신분 낮은자는 장식없는 투구를 써서 무장 장비에서의 신분적 차이를 보인다.

武士들의 의복은 방어하기 위한 갑옷이다. 갑옷에는 쇠로 만든 수 많은 패쪽을 나란히 꿰매서 만든 挂甲과 커다란 쇠조각을 통형으로 만든 短甲이 있는데 모사도에 보이는 고구려의 갑옷은 대개 패갑이다. 통구12호 삼실총 안악3호, 쌍영총의 기마병들의 갑옷입은 모습은 목 부분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부분과 긴 소매가 있는 갑옷上衣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갑옷下衣를 입었다. 또한 기마전투에서 말을

보호하기 위한 말투구와 馬甲의 모습이 삼실총 안악3호, 약수리고분 쌍영총에서 보이고 있다.

## 2) 수렵인

안악1호, 감신총의 기마수렵인은 챙이 넓은 笠帽를 쓰고 있으며 무용총, 쌍영총의 활을 쏘고 있는 수렵인은 절풍에 새깃털이나 새꼬리털로 장식한 관을 쓰고 있다. 약수리 벽화에 나오는 기마 수렵인은 대체로 巾를 쓰고 있다.

문헌에서와 같이 새깃 장식으로 冠帽의 신분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은 대부분 직령의 칠부 소매 襦와 袴차림이었으나 감신총의 활을 쏘고 있는 수렵인은 단령의 袴를 입고 있다. 대체로 袍가 없이 襦, 袴, 帶, 靴차림으로 매우 수렵하기에 편한 차림이었다.

## 3) 官吏들

안악3호분 주인공의 시중을 들고있는 記室, 省事, 門下拜 등과 덕흥리고분의 13군 태수 내조도의 대부분의 관리들은 뒤가 뽕족하게 뿔이 난 듯한 幘을 사용하고 있다. 안악3호의 무관인 장하독의 관모는 모자의 들레가 있고 그위가 뽕족하게 솟은 것이다. 옆에서 보면 뒷부분이 삼각형을 이루며 그 운두가 뽕족하게 보인다. 안악3호의 도끼를 들고 있는 무사들도 이러한 책을 착용하고 있다. 뒤에 뿔난 幘을 사용하고 있는 官吏층은 대부분 직령 袍를 입고 있다. 그러나 뒤가 솟은 幘을 사용하고 있는 무관들은 대부분 襦, 袴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이 적은 文官들은 뿔난 幘에 袍를 착용하고 武人들은 뒤가 솟은 幘에 襦袴차림을 하였다고 생각되어진다.

## 3. 낮은 신분층

낮은 신분층은 고분 벽화속의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범주로 정하고자 한다. 曲藝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악기다루는 사람들, 허드레 일을 하는 사람들, 씨름이나 수박도를 하는 사람들, 수문장이나 力士들

### 1) 曲藝人

팔청리고분, 수산리 벽화, 안악3호 약수리 고분등의 曲藝人들은 간단한 형태의 巾을 두르거나 官帽 착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冠의 종류나 형태는 신분층의 확실한 구분을 위한 표시물이라 생각한

다. 그리고 의복은 대부분 직령의 襦와 통이 좁고 짧은 袴를 입었다. 팔청리 벽화의 한사람만 등근것에 소매통이 넓은 襦를 입었다. 즉 단순함과 실용성의 기본 형태인 襦, 袴, 帶의 차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舞踊人

무용총, 안악3호, 고산동1호, 약수리고분, 통구12호분, 안악3호등의 춤추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모를 쓰지 않은 맨머리 상태였다. 의복은 소매가 매우 긴 襦와 袴, 裳으로 되어 있으며 춤추는 여자들은 고유의 袍도 함께 착용하고 있다. 춤추는 남자들은 거의 襦, 袴차림으로 袴의 넓이와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3) 奏樂人

안악3호의 실내에서 앉거나 서서 연주하는 여인들의 頭飾은 모두 관을 쓰지 않고 긴 머리를 모양있게 올린 형이다. 두번째로 飛天하는 환상적인 모습을 한 주악인들의 頭飾은 무용총의 왼쪽 주악인만이 7자형 관을 쓰고 나머지는 올린머리이고 상투형(통구4호), 또는 짧은 머리를 구불거리게 형(강서대묘, 삼실총)등이다. 세번째로 기마 주악인들은 책이나 이중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말을 타지 않은 행렬도 속의 고취대(평양역전벽화, 수산리고분, 약수리고분)들은 대부분 巾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주악인들은 직령의 긴 소매가 있는 襦와 긴 裳을 착용했다. 비천하는 신선모습의 주악인들은 소매끝과 바지끝 자락을 긴 예각형으로 처라했으며 襦와 袴가 붙은 형태 있으며 무릎까지의 짧은 裳도 있다. 행렬도 속의 머리에 巾을 쓴 고취대들은 대부분 직령 襦에 짧은 袴차림이며 기마 고취대들은 형태가 넓고 주름이 많이 진 직령의 긴 袍에 이중관을 많이 사용하였다.

### 4) 雜役人

안악3호, 약수리고분, 무용총 등에서 허드레 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의 머리가 공을 많이 들인 올린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높은 신분층의 머리 형태와 구별이 없다는 점이다. 무용총의 두시녀는 고유 개념의 선이 둘러져있고 허리에 띠를 메는 袍와 그밑에 裳, 그리고 袴를 입은 것이 보인다. 안악3호의 허드레 일을 하는 여인들 대개 袍를 착용하고 있으나 방아짚는 여인은 특이하게 길이가 짧은 襦를

입고 속에는 원피스형의 긴 통옷을 입은 듯하다.

#### 5) 運動人

각저총, 무용총, 안악3호에서 씨름이나 수박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대개 상투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은 운동하기 편하고 간단하여 거추장스럽지 않은 腰衣만을 입고 있다.

#### 6) 守門 및 力士

약수리고분, 통구사신총, 진파리1호 삼실총, 대안리1호 등의 수문장이나 力士들은 관모없이 맨머리이거나 상투머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짧은袴, 직령의 소매길이 짧은 襦를 대부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실총의 力士는 둥근깃의 襦와 帶, 袴의 차림이다. 이는 하늘위를 나르는 비천상의 일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 V. 結 論

사회가 확대되고 문화가 발달되어 오면서 服飾은 신분의 표상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특히 천연 섬유와 천연염료에만 의존해 오던 고대 사회에서의 服飾은 그 재료나 색상, 복식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제한을 받아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사회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고구려시대의 사회 계층과 복식구조를 벽화고분속의 인물풍속도를 분석하여 연구해 보았다. 고구려문화, 고구려벽화고분, 안악제1, 2호분 발굴보고, 안악제3호분 발굴보고, 덕흥리 고구려 벽화 무덤등의 책속의 인물풍속도의 模寫圖를 복사하여 고분별로 모으고 필요한 고분벽화 자료의 模寫圖를 보충하여 고분별로 복식을 정리하였다. 고분별 模寫圖 복식을 크게 세범주의 신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높은 신분층으로는 벽화의 주인공과 부인으로 한정시켰고 두번째 중간 신분층으로는 官吏들, 狩獵人 그리고 武人들이며 세번째로 낮은 신분층으로는 하고있는 일에 따라 曲藝人, 舞人, 奏樂人, 雜役人, 運動人 그리고 수문장 및 力士들로 그 범주를 정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복식 모사도를 정리하여 복식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자의 관모는 신분상징의 표상물로서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났다. 문헌에 나타난 羅冠, 幘, 折風 이외에도 머리수건 형의 巾이 많이 나타났다. 남자

의 衣服은 높은 신분층에서는 소매통이 넓고 헐거운 濶袖袍를 많이 착용했으며 袍속으로 겹겹이 받침옷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진다. 낮은 신분층일수록 간단한 형태의 襦, 袴를 입었고 하는 일에 따라 腰衣 형태까지 나타났다. 즉 높은 신분 일수록 옷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외래문화를 받아들인 여건이 용이하였으므로 주변국가의 복식을 선택하여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 복식의 경우 문헌의 기록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頭飾에서 巾幘이라는 것만이 보이고 있다. 여자머리 모양의 종류로는 엷은 머리, 내린머리, 올린머리, 묶은 중발머리, 풀기명머리 등이 있는데 올린머리가 가장 다양하며 화려하게 나타났다. 신분차이에 따라 머리모양과 의복에서 명확한 차이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 여인들의 의복 종류는 많아서 고유개념의 긴 襦, 袴, 裳, 袍이외도 둥근깃의 통옷, 소매통이 넓고 품이 넓은 袍등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복식문화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여밈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는데 통구지역 벽화고분에서는 左衽이 많았고 평양지역 고분에서는 右衽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복식이 이미 고구려시대 복식문화를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기본 복식에 대한 개념도 더욱 넓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李如星(1947)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柳喜卿(1974) 「한국 복식사 연구」, 서울 梨大出版部  
 金基雄(1986) 「韓國의 壁畫古墳」, 서울, 同和出版社  
 金英淑(1985) 「韓國服飾史 資料選集」上古, 高麗篇  
 서울, 東洋服飾研究院  
 金哲垞(1970) 「韓國古代社會研究」서울, 지식산업사  
 崔淳雨(1982) 「韓國美術」I 古代, 高麗, 서울, 陶山  
 文化社  
 金元龍(1988) 「韓國考古學概說」서울, 一志社  
 金元龍(1973) 「韓國美術全集」, 4 壁畫 서울, 同和出  
 版公社

- 金元龍(1980)「韓國壁畫古墳」서울, 一志社
- 呂南喆, 金洪圭, 共譯(1982)「高句麗文化」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編
- 朱榮憲(1972)「高句麗壁畫古墳」東京: 學生社
- 岡崎敬(1980)「東西交渉考古學」東京: 平凡社
- 「高句麗 文化展圖錄」(1986) 高句麗文化展 實行委員會
- 「안악3호분 발굴보고」(1957), 과학원 출판사
- 「德興里 高句麗壁畫古墳」(1986) 朝鮮畫報社
- 「德興里 高句麗 壁畫무덤」
- 「高句麗 古墳壁畫」(1985), 朝鮮畫報社
- 沈從文 編(1981)「中國古代服飾研究」商務印書館
- 강혜원(1984), 「의상사회심리학」서울, 敎文社
- 金貞鎬(1978)「“社會階層과 衣服行態”- 서울 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사료로 보는 한국사」(1987) 한남대학교 국사연구실 엮음, 한남대학교 출판부
- 李 玉(1986)「高句麗 民族 形成과 社會」敎保文庫
- 林巴奈夫編(1976)「漢代 文物」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池內宏, 梅原末治 共著 (1940)「通溝 卷下」日滿文化協會刊
- 멜빈M.류우민 著, 金彩潤, 장하진 公역 (1986)「社會階層論」三英社
- 金泳謀(1987)「現代社會階層論」韓國福祉政策研究所 出版部
- 「韓國史 市民講座」(1988 제2집), 一潮閣
- 한상진 編(1987)「階級 이론과 계층이론」文學과知性社
- 金貞鎬 (1984) “社會階層과 衣服興味度”, - 대전 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 大田, 韓南大學 論文集 第14輯
- 김민자, 김정호 (1983) “패션 리더쉽에 관한 연구 (I)” 서울.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1호